

‘간토학살 기록’ 발굴에도…

희생자 수조차 집계 않는 日지자체들

간토대지진 101주년 맞아 질의
도쿄·이바라키·도치기 “파악無”
도쿄도지사는 조선인 추도식에
8년 연속 추도문 보내지 않아

일본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이 101년 전 간토대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 학살 관련 기록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은 학살 희생자 수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2일 도쿄신문이 간토대지진 101주년을 맞아 간토 지방 광역지자체 7곳을 대상으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 등을 질의한 결과, 도쿄도·이바라키현·도치기현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가나가와현은 11명이라고 응답했고 군마현은 “후지오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후지오카 사건은 당시 자경단 등이 경찰서에 있던 조선인 17명을 학살한 것을 지칭한다.

지바현과 사이타마현은 현 당국이 폐년 역사서 등을 토대로 각각 96명 이상, 최소 91명이라고 답했다.

특히 도쿄도 관계자는 사망자 수 등에 관한 국가 기록이 있음에도 “어디까지나 국가가 파악했던 내용으로 도쿄도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도 지사는 스미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야미초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1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한국인 무용가 김순자 씨가 진혼무를 추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도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다구 요코야미초 공원에서 매년 9월 1일에 열리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8년 연속으로 별도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 등 조선인 학살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나카 마사타카 센슈대 교수는 학살 희생자 수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도쿄도에 대해 “정부도 도쿄도도 사료를 보존하고 있다”며 “도쿄도 회담은 지금까지 조사·연구를 무기한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바라키현과 도치기현도 조선인 학살이 명시된 기록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희생자 수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가나가와현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사료를 발굴해 지역 내에서 조선인 145명이 학살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발표했음에도 학살 사망자가 11명이라고 했다.

이 단체의 야마모토 스미코 대표는 “(사료) 공개 이후 현에 대화를 신청했지만,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일본에서 간토 학살 관련 단행본을 펴낸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 씨는 “도쿄도 등의 회담에서는 사태를 파악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연합뉴스

이러한 “정부가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로, 지자체가 조사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각지에서 벌어지는 시민 조사는 본래 행정 당국이 해야 할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계엄령을 선포했고 당시 일본 사회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방화한다’ 같은 유언비어가 널리 유포됐다.

이러한 헛소문으로 약 6천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이 일본 자경단원, 경찰, 군인 등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됐다. /연합뉴스

“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ABC·입소스 여론조사…“여성 유권자의 선호 두드러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8월19~22일) 직후인 지난달 23~27일 성인 2천 4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전당대회 전인 지난달 9~13일 진행된 여론조사 지지율(해리스 49%·트럼프 45%)과 비교하면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 통상 전당대회 기간 후보가 집중 표명을 받으면서 이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센션 효과’를 기대하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A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이 양 진영으로 확고하게 갈린 양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전체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 유권자의 해리스 선호가 더 두드러졌다.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해리스 51%·트럼프 45%

%로 전당대회 이전 조사(해리스 51%·트럼프 45%)보다 두 후보 간 격차가 벌어졌다.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해리스 49%·트럼프 46%에서 해리스 46%·트럼프 51%로 뒤집어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고 ABC뉴스는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93%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봤지만,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79%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좋은 점수를 줬다.

오는 10일 예정된 첫 대선 TV토론의 경우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 승리를 예상했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7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다.

유권자들은 주요 현안인 경제와 물가, 국경 문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간으로서의 호감도, 신체·정신적 건강, 정직함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팅트도 지난달 말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48%)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4%포인트 우위에 있었으나 전당대회 전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3천500년 된 향아리 깻 꼬마, 환대 속 박물관 재입성

깨진 향아리 3D 기술로 복원 중

이스라엘 하이파 헤르트 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기 시대 향아리를 실수로 깨트렸던 네 살배기 꼬마가 환대 속에 박물관을 다시 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엘은 지난달 23일 가족과 함께 헤르트 박물관을 찾았다가 실수로 3천500년 된 향아리를 깨트렸다. 기원전 2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포도주 기름을 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향아리는 35년째 헤

르트 박물관에 전시돼있던 유물이다.

박물관은 관람객이 유리벽 등 보호물 없이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는데, 아리엘은 향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호기심에 살펴보다 실수로 깨트리기도 했다.

박물관은 고의로 깨트린 것이 아님을 확인한 뒤 오히려 아리엘 가족을 박물관에 초청해 복원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측은 3D 기술을 활용해 향아리를 복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면제 먹고 흥취간다”

아르헨 美대사관 ‘검은 과부’ 주의보 발동

“그녀들은 유혹하고, 수면제나 마약을 먹인 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훔쳐간다. ‘검은 과부’를 조심하라”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최근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검은 과부’ 주의를 발동했다. 검은과부거미가 짝짓기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데서 유래한 ‘검은 과부’란 잘 모르는 남자에게 접

근, 수면제나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돈, 가전제품, 의류 등을 훔쳐가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대사관은 ‘검은 과부’의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혹은 데이트앱으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들이 권하는 음료나 음식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이 ‘검은 과부’ 주의를 당부한 것은 최근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라플라타에서 발생한 ‘검은 과부’ 사건은 현지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검은 과부’ 전과를

가진 40세 여성은 당시 공범인 다른 여성과 함께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은 73세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소리치자 술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는 당시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이 피에 범벅이 된 채 발견돼 현지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언론은 지난 1일(현지시간) 라플라타에서 발생한 ‘검은 과부’ 사건을 조명(사진)하면서 국제·나이를 막론하고 미인계를 사용한 이 수법에 대해 조심하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K-06 중상급자용

피닉스 K-03 초보 중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